

# 제125회 여름대공연 조명팀 인수인계서

천유진

## 1. 조명팀을 하게 된 분들에게

조명팀은 준비기간 동안 공연에서 쓰일 조명 및 큐를 디자인하고, 공연 전 극장에서 직접 조명을 설치하고, 공연 때 직접 오퍼를 보면서 큐를 컨트롤하는 팀입니다. 준비기간 내내 거의 생각하는 것으로만 대부분을 진행하다가 하루 이틀만에 실제로 구현해야 하다 보니 설치하고 공연하는 일주일 내내 많은 돌발상황과 변동사항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을 빠르게 대처하고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 내내 연출진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것, 장면 연습이 시작된 이후에 연습에 자주 참관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이런 말을 해서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연습에 자주 가고 자주 얘기하면 친해지고, 친해지면 재밌으니까요. 여러분이 공연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재밌는 추억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조명의 매력은 빛 하나로 극의 분위기와 상황을 만들어준다는 것, 무엇보다도 그 표현이 아름다운 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조명팀을 하면서 이 매력을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2. 조명기기

조명 관련 용어 설명은 대부분의 이전 인수인계서에서 친절하게 정리가 되어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4회, 115회, 116회 조명 인수인계서를 읽어 보길 바랍니다.

[파]

크기에 따라 대파, 소파로 분류됩니다. 동방에 보이는 대부분의 조명이 대파입니다. 동방에 있는 것 중에선 램프가 없이 파캔만 남아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빛이 고르게 퍼지기보다는 포커스 된 곳을 중심으로 타원형의 빛을 내는 조명입니다.



### [퍼넬]

포커스 된 부분을 중심으로 고르게 퍼지게 빛을 내는 조명입니다. 밝은 중앙부분을 중심으로 빛이 퍼져 테두리가 부드럽게 번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기 뒷부분에 빛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이를 돌리면 퍼지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어 에어리어를 좁게 혹은 넓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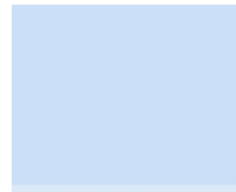
주로 핀 조명을 줄 때 사용하는 조명입니다. 강한 빛으로 하이라이트를 주고 싶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엘립 통의 중간부분에 사방으로 4개의 막대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칼이라고 합니다. 칼을 넣었다가 빼거나 돌리는 등 움직여서 에어리어의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칼을 다 빼게 되면 원형의 에어리어가 나오게 되고, 칼을 움직여 사각형 등등 여러 모양을 잡을 수 있습니다. 또 엘립의 앞쪽 통을 안쪽으로 넣었다가 빼면서 초점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는 에어리어의 테두리 라인을 또렷하게 만들어 주거나 흐릿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젤라틴]

색조명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셀로판지처럼 생겼으며, 젤라틴을 잘라서 색조명으로 하고자 하는 조명(파, 퍼넬)에 맞는 틀에 끼운 후, 조명 앞에 틀을 끼워 사용합니다. 혹 틀이 잘 맞지 않는다면,, 그냥 조명 앞에 젤라틴을 씌워 테이프로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꼭 전기 테이프로 해야 안 녹습니다. 또, 공연을 하다 보면 열에 의해 젤라틴이 녹아서 색이 날라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새것으로 교체해야 하니 여분의 젤라틴을 준비해 두길 바랍니다. 동방에 이미 구비되어 있는 색도 있으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색이 있다면 구매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저희는 이번 공연 중에 파란색 젤라틴을 구매했습니다. 구매처는 을지로에 위치한 신일특수조명전시장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공연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필터가 있어 소개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법정은 하얀 빛, 동방은 노란 빛으로 색 차이를 두는 것이 필요했는데, 극장의 퍼넬 색 자체가 노란 빛을 띄어 하얀 빛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것이 CTB 필터입니다. 겉보기에는 파란색 젤라틴과 비슷해 보이지만, 이는 색 온도를 바꿔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저희가 구매하지는 않았지만 하얀 빛을 노란 빛으로 바꾸어 주는 CTO 필터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동방에 CTB 필터 남은 것들이 있을 텐데 파란색 젤라틴과 헷갈리지 않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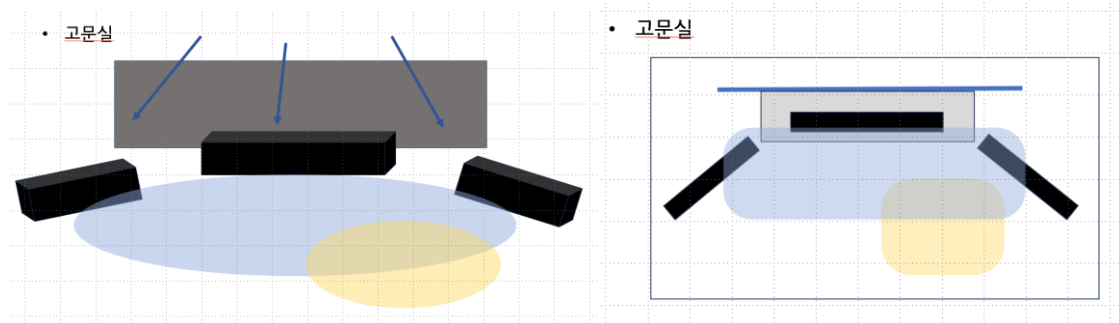
**201 Full C.T. Blue**

\*3200K → 6870K로 변환

### 3. 조명팀 플랜

조명팀의 플랜은 크게 장면 연습 시작 전, 후, 공연기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주에는 보통 팀원끼리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고, 둘째 주에 조명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앞선 2의 내용뿐만 아니라 조명 관련 용어, 조명팀이 하는 일, 공연의 순서 등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주에는 대본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극의 내용이 무엇인지,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장소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인물의 등·퇴장은 어떻게 되는지, 시간 변화가 있는지 등등을 다같이 정리해보면 됩니다. 이후부터 장면 연습 시작 전까지는 조명 디자인을 하는 기간입니다. 미리 연출진과 상의해서 방향을 잡거나, 혹은 조명팀 회의에 연출진이 함께하여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가진 상태에서 디자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대도면을 중심으로 에어리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조명을 쓸 것인지, 색조명을 사용한다면 어떤 색을 쓸 것인지, 어디에서 비출 것인지를 생각하여 해당 조명을 디자인합니다. 장면 연습 시작 전 조명 디자인을 마무리하고, 장면 연습이 시작되면 디자인한 조명을 토대로 큐시트 초안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공연 직전까지 조명팀은 캐스트 연습을 필수로 참관해야 합니다. 저희는 주에 1,2회 이상 연습 참관이 숙제였고, 참관일지를 배부해 팀원들이 캐스트 연습에 참관해서 무엇을 하면 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연습을 참관하면서 해당 장면의 큐를 확인하고 수정하기를 반복합니다. 큐시트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수정을 하고, 시연회 전에 픽스하거나, 시연회 직후 픽스하면 됩니다. 그 다음주에는 조명 설치, 리허설, 공연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설치하고 리허설하는 과정에서 큐시트 변동이 사실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큐시트 수정이 가능하도록 노트북을 극장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리허설 전에는 큐시트를 서브, 채널 번호로 작성한 공연용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연이 완전히 끝난 후에는 조명팀은 무대팀과 함께 철거 및 정리를 진행합니다.

## [디자인]



## [큐시트 - 초안]

Cue #	Scene #	장면	직전대사/ 음향	큐	비고
1	하우스	관객입장		하우스 조명 in	
2	기획인사				
3	0장	기자회견	여자 객석에서 일어날때	좌측 핀 D.I.	
4			여자 "역사의 현장을 담아주세요" 후	벽 조명 D.I.	
5			여자 "퍼트려주시길 바랍니다" 후	좌측 핀 D.O.	
6			정배 "당신들이 반국가적입니다" 후	앞 조명으로 CROSS	
7			주혁&정배 "답하라 답하라 답하라", 서류 뿌린 후	앞 조명 D.O.	
8	1장	재판 직전		법정 조명 D.I.	
9	2장	법정	주혁 "돈결아 대답해 임마" 후	법정 조명으로 CROSS	
10	3장	연극반	주혁 "네 정말 몰라서 묻는대요" 후	동방 조명으로 CROSS	
11	4장	법정	정배 "돈결아 너는 독백이 뭐라고 생각해" 조금 뒤	잔디밭 조명으로 CROSS	남는데 색조명
12	5장	잔디밭	전경들 군홧발 소리와 동시에	초록 조명 D.O. & 혼란 조명	다음주
13			여자 "도서관" 동시에	동방 조명 just / 동방 낮게 & 양핀	속도 낮추거나 / 동방조명으로
14			남자 "연극마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후	긴 중앙 핀으로 CROSS	전체 조명 깜박
15			정배 독백 받을때	앞 핀으로 CROSS	

## [큐시트 - 공연용]

Cue #	Scene #	장면	직전대사/ 음향	큐
1	하우스	관객입장		서브2(조도40) IN & 객석등 on
2		기획팀 "관객 입장 마감하겠습니다"		객석등 off (팔각 소리 날 때까지 완전히 돌려야 함)
3	기획인사	연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		서브2 D.O.
4	0장	기자회견	기획인사 음향 끝나고 연출 자리 앉고 증 조용해지면	서브1 서서히 D.I.
5			여자 "역사의 현장을 담아주세요", 주혁 정배 등장 후 음향 엔터와 동시에	외부2 on
6			여자 "널리널리 퍼트려주시길 바랍니다" 후 1초 뒤	외부2 off
7			주혁&정배 "답하라 답하라 답하라", 서류 뿌리고 서로 마주본 후	서브1 D.O.
8	1장	재판 직전	음향 F.O. 중 (높은 음 뻑 들릴때)	서브8(풀) 후 서브2(조도20) D.I.
9			남자 동선 이동 시 (남자 "지켜볼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서브7 D.I.
10			여자 등장 시 (남자 "현장에 있는 겁니다.")	서브9 D.I.
11			남자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시오", 박수 3번째에	서브2 조도 풀로 천천히 up & 서브7,8,9 빠르게 D.O.

## 조명팀 캐스트 연습 참관일지

이름: <span style="background-color: black; color: black;">[REDACTED]</span>	참관일: 8/2
참관 장면(#): 9끝→ 10.	
인물 동선 및 위치 (참관 장면별로 도식화 혹은 글로 기록)	
#9 동방 마지막 부분	
<p>행동) 주혁, 정배, 승희, 돈결 인사 후 스모그, 남자 등장해 주혁들을 밀쳐 넘어뜨림</p> <p>동선) 남자 하수에서 등장, 주혁을 넘어트린 후 하수쪽 교문실 책상으로, 주혁들 각각 흩어지며 돈결이 중앙상수 압쪽에 넘어져야 함 (표정 잘보이게)</p> <p>위치) 돈결은 중앙상수 압쪽, 주혁 교문실 책상 압쪽, 승희 중앙하수 뒤쪽, 정배 상수 뒤쪽 위치, 남자는 교문실 책상 앞.</p>	
#10 (교문실)	
1. 교문 예고	
<p>행동) 남자 대사를 하며 서서히 나옴, 주혁-정배-승희-돈결 순서로 각자에 맞는 교문 방법 설명, 말할 때 약간 숙이는 자세 (확정 X)</p> <p>동선) 남자 교문실 책상 앞에서 대사를 치며 옆쪽으로 조금씩 나옴, 압쪽에서 주혁, 정배, 승희를 거쳐 돈결에게 갈</p> <p>위치) 돈결은 중앙상수 압쪽, 주혁 교문실 책상 압쪽, 승희 중앙하수 뒤쪽, 정배 상수 뒤쪽 위치, 남자는 돈결 옆</p>	
2. 돈결 도망	

<p>행동) 남자 대사를 하고 선처해 주기로 결정</p> <p>동선) 무대 중앙 쪽에서 하수 뒤쪽으로 퇴장</p> <p>위치) 남지만 퇴장하고 나머지 그대로</p> <p>6 마무리</p> <p>행동) 원달의 대사 후 인물들이 하나씩 일어나서 각자의 갈로 갈</p> <p>동선) 주혁, 승희 하수 퇴장 / 돈결, 정배, 원달 상수 퇴장 순서는 상간 X</p>	
<p>큐 타이밍 (참관 장면별 조명 변화 시작시점 ex. 인물의 어떤 대사/행동 직후)</p> <p>#9 마지막</p> <p>스모그 나오기 시작 소리 (침이이익?) 조명 변화 서서히 동맹→ 교문실</p>	
<p>#10 마지막</p> <p>주혁들이 각각 걸어가고 1. 마지막 원달이 가고 나서 남거진 교문실을 보여준 뒤 조명 out / 2원달이 갈 때 조명 out</p>	
비고 (연출자의 말 / 본인 의견 / 큐 수정사항)	

[설치 전]

[설치]

조명기기 설치 시 채널 연결 관련 일을 할 때는 항상 콘솔의 마스터를 내려준 상태에서 작업합니다. 또, 한 번 켜졌던 조명기기의 경우 순식간에 뜨거워지기 때문에 항상 목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합니다. 조명기기를 잡을 때는 앞부분을 잡지 않고 윗부분에 있는 고리를 잡아서 옮깁니다. 앞부분을 잡게 될 경우 조명기기를 불안정하게 잡게 되고 바에 걸 때나 사다리 위에 올려줄 때 조명기기의 중심이 한 쪽으로 쏠려 떨어뜨릴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퍼넬이나 엘립 등 무거운 조명기기의 경우 바에 걸어 조명기기의 나사로 고정시켜준 다음, 철사링으로 조명기기의 고리와 바를

묶어 한 번 더 고정시킵니다. 채널 연결할 때는 항상 조명기기를 바에 완전히 건 후 연결합니다. 조명 기기 설치 후 선이 지나치게 아래로 내려와 있는 경우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바와 선을 묶어 선을 고정시켜줍니다.

#### [에어리어]

디자인한 대로 조명들의 위치를 다 잡고 바에 걸었다면, 제일 먼저 전체 조명의 에어리어를 잡습니다. 에어리어를 잡을 때는 한 명은 콘솔을 조정하고, 조명을 켜 상태에서 나머지는 무대에서 조명을 조정하고 연출진과 함께 에어리어를 보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전체 조명 에어리어는 전체 벽에 그림자 지는 것 없이 조명이 묻는지 그리고 무대 중앙, 상수, 하수, 앞, 뒤에 사람이 지나갈 때 고르게 빛이 묻는지를 모두 만족시키도록 잡으면 됩니다. 극장 환경상 위를 모두 만족시키는 에어리어를 잡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극 전체적으로 인물들의 동선과 위치를 생각하여 만약 무대의 양 끝은 거의 사용 안 하는 경우 양 끝 쪽은 조명을 좀 어둡게 두는 방향으로 에어리어를 잡으면 됩니다. 그러나 무대 중앙은 그 조도 차이가 심하게 나지 않도록 잘 조정해야 합니다. 전체 조명으로 퍼넬을 사용하게 된다면 사선 방향 설치 보다는 정방향 45도 기울기로 설치하는 것이 고르게 빛을 묻힐 수 있습니다. 에어리어에 따라 좌우로 조금씩 방향을 조정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명으로 무대 중앙과 벽을 모두 커버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무대 중앙을 커버하는 조명들, 벽을 커버하는 조명들을 따로 두는 게 좋습니다. 또, 엘립이나 색조명은 정해진 위치로 설치하게 되는데 전체 조명에 이 조명들의 그림자가 무대에 비치지는 않는지 잘 조정합니다. 또, 인물의 그림자가 무대에 선명하게 여러 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리어를 잡는 것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시간 분배를 할 때 에어리어 잡는 것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서브 저장]

디자인한 조명들을 서브에 저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보통의 콘솔은 채널들을 묶어서 쓸 수 있는 서브 디머가 있습니다. 에어리어를 잡기 전에 대충 미리 채널들을 묶어 둔 후에 에어리어 조정 시 사용해도 좋습니다. 연출진과 함께 조명을 보면서 에어리어, 각 채널의 조도 등을 최종 결정하여 공연에서 쓸 조명으로 서브를 저장합니다. 서브가 최종적으로 저장되었다면 큐시트를 예를 들어 법정 조명, 동방 조명으로 명칭된 것들을 해당 디머 번호인 서브 2, 서브 3 등으로 바꿔서 공연 큐시트로 사용합니다.

## 5. 오퍼

큐시트대로 조명큐를 컨트롤하는 오퍼 또한 조명팀이 공연 중에 보게 되는데, 오퍼는 연습할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특히나 오퍼 연습으로 전체 런을 돌리는 것은 리허설때가 아니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오전 공연 전에는 캐스트들과 음향팀과 함께 뒤깍이를 보통 하게 되는데 이 또한 여러 번 연습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퍼 연습은 극장에 일찍 나오거나 혹은 늦게 남아, 뒤깍이 전 혹은 이후 틈틈이 조명팀끼리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오퍼 자체가 디머를 손으로 컨트롤 하는 것이다 보니 디머를 올리고 내리는 그 빠르기를 손에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의 딤인, 딤아웃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천천히 디머를 움직이는 게 알맞은 속도입니다. 무대를 보면서 조명이 꺼지고 켜지는 걸 보면 알맞은 속도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크로스가 까다로운 큐 중에 하나인데, 빠르게 크로스는 움직일 디머들을 동시에 빠르게 올리고 내리면 되지만 느리게 크로스가 될 때에는 자연스러움이 중요합니다. 이때 마치 눈을 깜빡이듯이 너무 어두워졌다가 밝아지는 느낌으로 크로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움직일 디머들의 올리고 내리는 속도를 적절하게 잘 맞추어야 합니다. 이번 공연의 경우 연습할 시간에 비해 큐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총 인원 8명 중 오퍼 인원을 4명으로 두어 인당 약 2번씩 오퍼를 보도록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팀원 모두가 한 번씩 오퍼를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공연 경험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공연의 완성도나 효율성을 위해서는 오퍼 인원제 제한을 두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 6. 끝으로

제가 조명팀을 하면서 나름의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들을 적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늘 부족한 점이 있었고 모르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인수인계서에 적힌 것들이 꼭 정답은 아니라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25회 여름대공연을 함께한 분들에게 몇 자 적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이 인수인계서를 쓰게 된 시작인.. 이 공연에 함께하게 해 준 연출 은세에게 고맙습니다. 여러가지로 신경 쓰느라 바빴을 텐데 조명 디자인에 대해서 매번 디테일하게 생각하고 얘기해줘서 어려운 공연이었지만 오히려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키스팀들 채연이, 현진이, 하연이, 연희, 선웅이에게, 준비기간 내내 공연이 잘 만들어질 수 있게 각자 최선을 다 해줘서 너무나도 고마웠고 여러분과 함께 해서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빠서 잘 못 챙겼지만 그럼에도 믿고 잘 따라와준 우리 조명 팀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